



집의 불막이 수호신 용과 거북

글 | 박선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한옥은 자연의 산물이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은 집의 가장 좋은 주제이자 재료가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집을 짓는데 있어 첫 번째의 원칙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멀리서 이동해 올 필요가 없으니 효율적인 답이 되는 것이고, 익히 보아오고 접해 왔기에 그를 다루는 방법 또한 두터운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이 많은 곳에서는 돌로, 흙이 많은 곳에서는 흙으로,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나무가 집구성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

과거 주거공간에서의 불의 위치

돌은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쉽거나 강한 성분을 지녔고, 나무는 곧으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품었으며, 흙은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한옥의 특성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소재의 어울림이다. 자연과 함께 가는 모습이 더 없이 아름답지만 현재 지어지는 집처럼 반영구적인 인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지닌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한정된 역사의 산물로 남게 된 것이다.

집을 경영하고 그 안에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시주거의 발굴 현장에서도 불자리는 유일하게 제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설치물이고, 가장 기본적인 집의 형식에서도 불을 위한 공간은 우선적으로 계획되어져 왔다. 그것은 조명기구이자, 취사도구이고, 난방역할이었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른 모든 사물들처럼 집 또한 발전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된다. 사실 집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진보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형식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움집은 행위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한다. 실의 분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었던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게 해주었고, 각 기능에 맞는 실들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의 발전 개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불자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중앙이라는 것은 불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추형을 하고 있는 움집의 형태로 보아 지붕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다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순전히 나무와 그와 유사한 재료들로 지어진 집은 불의 위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불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는 없으면서도 특별한 방비책도 없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적으로 전통주거들은 자연에서 그 재료를 대부분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으로 복귀하려는 기본적인 본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나이에 비하면 현재 남아 있는 집들의 나이는 턱없이 어리다. 유구가 없으니 사라진 것들의 모습은 다른 부분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그것은 집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이나, 집 모양을 한 다른 용도의 물건들이 된다. 하지만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 추측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공통점은 있으니 우리 선조들이 방에서 생활하면서 바닥에 바로 앉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 속에 남아 있는 그림은 대부분이 평상 위에 앉아 있는 것들이니 그들의 생활방식은 좌식이 아니라 입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입식이라는 것은 난방과 관련된 불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바닥에 불기운이 없으니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할 수 있는 가구가 필요했을 것이고, 난방은 공기의 대류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에 믿음이 실린다.

바닥을 덮히는 난방방식이 없었다는 것은 온돌 구조의 부재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한옥에 대한 개념을 대입시킨다면 상상이 가지 않는 집의 양식이다. 전통한옥의 대표적인 특성을 언급할 때 항상 가장 앞서서 등장하는 것이 온돌과 마루의 결합임이 머릿속에 들어 있기에 이를 벗어난 형식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불을 집 가운데 두고 생활했던 원시 오두막이 고분벽화에 나오는 구조의 집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의

활용은 많은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기술의 발달이 밑거름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불의 의미와 사용 방법, 그리고 위치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더 나아가서 온돌의 발생과 정착과정은 그 이상의 변형을 예고했고, 실제적으로 집에 녹아들어 집의 내부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심이 되었다.

불을 막아주는 수문장, 용과 거북

이렇게 우리 집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펼치게 만들어 주었던 불이지만 변화의 궤적은 불로 인해 발생 되는 피해를 비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존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불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지만 생활의 편의를 넘어서 불은 우리네 집에 무서운 적으로 등장한다. 불길이 한번 훑고 지나간 자리를 흔히 '화마가 지나 갔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듯이, 무서운 기세는 마귀의 형상으로 비유가 될만큼 통제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나무로 집의 토대를 세우는 한옥에 한 번 불길이 닿는 순간은 불꽃이 높게 솟기를 바라는 점등식이 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리 나무로 대들보를 올린 집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을 집에 들이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학적인 작용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줄 마감재가 개발되었던 것도 아닌 시절, 우리의 선조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징적인 행위 밖에 없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지금처럼 그 곳에 사는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무형의 삶을 다 보답아 주는 안식처였다. 그들은 집을 아끼는 마음에 집안 곳곳에 그 구역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가신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집터를 잡고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집의 무사함을 기원했고, 이때 집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화마의 예방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 의식 중 가장 최고의 단계라고 여겨지는 상량식에서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상량문에 이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 수문장들을 등장시키니 그들이 바로 용과 거북이다.

용은 물을 상징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자 물의 신이요,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동시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실존의 동물이니 진정 오래도록 집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어 집안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 더 이상의 선택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이 땅 위에서는 날과 가족의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기리는 상량문의 양 끝자락에 용(龍)자와 구(龜)자를 반드시 함께 써 넣었다. 단지 물을 상징하는 글자가 불로부터 집을 지켜준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은 다른 모든 대사의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좋은 방편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마음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요즈음의 생활 안에서도 쉽게 경험하고 있으니 선조들의 지혜는 이미 인간사의 짜임을 파악해 버렸던 것이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고, 상량문을 새긴 집에서는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용(龍)자와 구(龜)자는 집주인의 재량과 취향에 따라 약간씩의 변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글자와 그림을 접목시킨 도형화로 이어진다. 둘 다 편히 쓰기는 쉽지 않은 획수들이고,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단순화된 그림의 형상에서 누구나 용과 거북을 떠올릴 수 있는 재치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크게 글씨를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내니 우리 한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던과 함축의 절정을 맛보는 기분 좋은 장면이다. 도형으로 형상화된 거북이의 꼬리가 애교스럽게 살짝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라치면 마치 살아서 상량문이 쓰여진 종보와 서까래 사이를 오가며 화재경보기 역할을 해줄 것 같으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마음이 놓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불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아 집에 드는 재앙을 막는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집안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대문에 붙이는 용(龍)자 역시 집안으로 화마가 침입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요, 안주인이 치성을 드릴 때 정성스럽게 떠놓고 비는 정한수 또한 불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니, 집안에 가장 큰 위협은 불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집을 치장하는 여러 가지 문양 중 불과 관련이 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 필자의 작위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연꽃을 모티브로 하는 부재들은 분명코 불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꽃은 물위에 피어 그 고고함을 보여주는 꽃이기에 집의 일부가 되어 있는 연꽃이 피어 있는 집은 물과 함께 있다는 은유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불의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과 그 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가장 절친한 관계에 있는 식물인 연꽃을 새기는 것은 우리 전통의 표현기법을 심본 발휘한 상징성의 미학이라고 생각된다.

얼마 전부터 집을 보러 다닐 때면 자꾸 관심을 두게 되고 카메라를 들이대게 된 것이 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의 손잡이다. 치장을 많이 하고 목수의 손이 많이 간 집이나 절에서 문빋장 고리를 거북으로 수장하는 것

을 자주 보아 왔었다. 솜씨 좋게 누가 보아도 거북의 등 꺾임까지 자세히 음각되어 있으니 보기에도 좋고 그 의도야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옥 집 부엌 판장문 손잡이에서 거북을 볼 수 있었다. 그건 분명 거북을 추상화시킨 상징적 모습이었다. 불을 많이 쓰는 부엌을 거북이 문 앞에서 지키는 것이다. 마다할 수 없는 불이기에 이렇게 은유적인 방법은 불을 화나게 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예를 갖춘 화해 의사인 것이다.

이외에도 집에서 불을 관리하게 위해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건물끼리의 간격을 둠으로써 한 건물에 불이 일어도 옆의 건물로 옮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했고, 방화벽이라고 하여 건물벽 아래 부분을 위와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기도 했다. 또한 궁궐과 같은 큰 건물에서는 '드무'라고 하여 물을 담아 두는 돌확을 건물 앞에 두었는데 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급하게 일어난 불길을 잡아주는 소화전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던 때의 관습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불씨를 꺼뜨리면 소박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그리 멀지 않은 시절의 것으로 듣는 것으로 보아 그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의 불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

지금도 우린 불 없이 생활하기엔 너무도 힘들다. 불꽃을 일으키지 않고도 난방, 취사, 조명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는 대체 기구들은 우리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새롭게 태어난다. 불이 지니는 위험성 때문이다. 하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무언의 힘과 감동의 능력을 저버릴 수 없기에 우린 그들과 공간과 시간을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우리 선조들이 불을 다루었던 그 여유로움과 마음으로 다스리는 21세기적 기법을 다시 일깨워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